

2010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 신자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대한 사랑과 후원으로 본부가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청하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 신자분들과 함께 본부는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룩되기를 꿈꾸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사회문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촌 빈곤문제와 환경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시작부터 그래 왔듯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에 힘써 왔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언제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었고, 오늘날의 교회도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대의 또 다른 약자인 '자연'을 포함하여 가난한 이들을 소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거듭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대교구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가난한 이들과의 나눔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이들의 삶을 돕는데 주력하려합니다. 또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녹색나눔'운동을 통해서 환경도 살리고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교구장대리 김운희 주교 + 김운희

평화, 국제협력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인도적 구호 및 국제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20(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본부 직원들과 홍보대사 배우 양미경씨가 어린이와 함께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해 진행하는 지구촌 이웃을 위한 환경살리기와 빈곤퇴치를 목표로 "I DO 녹색나눔운동(ECO-Sharing) 제가 하겠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12/20(일)~24(목)까지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했습니다. 자전거 발전기의 페달을 30회정도 밟으면 3분동안 트리의 전구가 불을 밝혀줍니다.

관련문의 02-727-2267, 2294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5-684-077777
예금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ARS 060-700-1117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09년 12월 31일 현재 **43,391명**

하루 100원 모으기 후원안내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 우리은행 454-005324-13-001
- 신한은행 512-03-004088
- 국민은행 083-01-0309-453
- 농협 386-01-015833
- 외환은행 061-22-03709-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0 연중캠페인

녹색나눔 ECO-SHARING 제가 하겠습니다

녹색나눔운동은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환경과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파괴로 야기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운동입니다.
실천사항을 집안에 붙여 놓고 함께 실천해 보아요!

| 요일 | 실천사항 | 절약금액 |
|------|--|---|
| 월(月) | 지구와 달(月)을 생각하는 날 BMW(Bus&Bicycle, Metro, Walk)족이 되어요. | 가까운 거리를 자전거와 도보 이용하면 하루 2600원 절약 |
| 화(火) | 에너지와 열(火)을 생각하는 날 불필요한 플러그는 모두 뽑고 난방온도를 1도만 낮추어요. | 난방온도 1도만 낮추면 난방비 7%, 하루 116원 절약 |
| 수(水) | 물(水)을 생각하는 날 양치질과 세수할 때 물을 받아 사용해요. | 양치와 세수할 때 물을 받아쓰면 하루 176원 절약 |
| 목(木) | 나무(木)를 생각하는 날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해요. | 일회용 컵 한 번만 안 쓰면 20원 절약 |
| 금(金) | 녹색을 모금(金)하는 날 빈곤퇴치와 환경보호를 위한 단체에 기부해요. | 녹색나눔 운동에 1주일간 참여하여 절약한 3,008원 기부하기 |
| 토(土) | 흙(土)을 생각하는 날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애용해요. | 우리 땅 살리기 |
| 일(日) | 태양(日)을 생각하는 날 불필요한 전등은 모두 끄고 자연채광을 이용해요. | 낮 시간 창가나 거실의 전등을 끄고 자연채광을 이용하면 하루 96원 절약 |

- **당신의 단 한 주의 실천이** 6명 어린이의 기생충예방약
물부족으로 흙탕물을 먹고 기생충으로 인한 수인성질환에 목숨을 잃어가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 **당신의 단 한 달의 실천이** 1가족의 1달치 식량공급
절대빈곤으로 굶주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한 가정의 한 달 식사를 해결하고
- **당신의 단 일 년의 실천이** 학생들의 미니도서관 1개
학교에 가서 책을 읽고 공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저개발국가 어린이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지구촌이웃들 스스로가 빈곤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주면 3,008 원

한 달이면 3,008원 X 4주 = 12,032 원

일 년이면 12,032원 X 12개월 = 144,384 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단 한 번의 유쾌한 실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법인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사셨던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이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법인의 명칭(이름) 공모는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목방향이었던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 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나눔과 기부를 통한 사랑의 문화를 가꾸어 가려는 노력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주 제 '비영리 모금전문 재단법인 명칭공모'

응모대상 누구나 참여가능

응모마감 2010년 01월 25일(월) 12:00까지

응모내용 ① 재단법인 명칭(국문표기 / 영문표기)

제안내용 ①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뜻을 잇는 명칭

② 국내·외 사랑의 나눔을 위한 모금기관에 어울리는 국제적 명칭

③ 명칭에 대한 뜻과 의미설명(A4 1장)

접 수 ● 전자우편 : bibicoo@hanmail.net

● 주소 : (우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4층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원개발부

수상자 발표 2010년 02월 16일(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

유의사항 원고는 가능한 한글 파일(HWP)로 작성

시 상 식 추후 공지

시상내역 ● 우수작(1명) - 상금 : 100만원 ● 가작(2명) - 상금 : 각 50만원

문 의 02) 727-2437 / 02) 727- 2267

※ 본 재단에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 가능합니다.

계좌안내 : 우리은행 454-003267-13-038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NEWS

2010.01

국제협력

2010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확정

본부는 전 지구적 빈곤퇴치와 사회정의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2010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미얀마, 네팔, 부룬디 등 총 8개국 17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띠앗누리 9기 파견

본부는 국제자원활동 프로그램인 띠앗누리 9기를 파견합니다. 띠앗누리 9기는 국내에서 총 4주간의 배움터를 통해 빈곤, 인권 및 환경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봅니다. 이어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캄보디아 칸달(Kandal)에 위치한 반티프리업(평화센터)과 감봉툼지역 감봉고 마을로 현장체험을 떠납니다. 현지의 지역주민·청년들과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생명운동

"와! 산타할아버지다" 소아병동 찾아 선물

성탄절을 사흘 앞둔 지난12/22(화) 경기도 일산국립암센터에서 본부는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를 열어 백혈병·난치병으로 투병중인 어린 환아들을 위로하고 쾌유를 기원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빨간 산타모자를 쓴 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는 환아들에게 담요, 탁상달력, 유기농 컵케이크 등 선물을 나눠주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를 위한 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성탄절을 맞아 12/16(수)~23(수) 전국 19개 병원 환자 1300명



과 본부 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 80명에게 총 4000만원의 산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본부는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백혈병·난치병 환자 30명에게 총 2억7,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사랑의 컵케이크



CIS유치원 강다연(다니엘라)어린이와 어머니 조효정(가브리엘라, 반포1동성당)님이 본 소식지 산타행사 기사를 보고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환우친구들을 위해 자연재료를 사용해 컵케이크 130개를 만들어 본부에 전달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 환우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케이크를 전달받은 환우들의 행복한 미소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환우지원사업

백혈병·난치병 어린이 지원사업

| 성명 | 병명 | 병원 | 진료비 |
|---------------------|-----------|--------|---------|
| 제** 남, 만 18세 | 횡문근육종 | 국립암센터 | 1,000만원 |
| 윤** 남, 만 2세 | 뇌종양 | 국립암센터 | 1,000만원 |
| 김** 남, 만 6세 | 단핵구성 백혈병 | 국립암센터 | 1,000만원 |
| 록***(베트남) 남, 1개월 | 허혈성 뇌손상 외 | 서울대 병원 | 1,000만원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파비스트 녹색나눔 기금마련 바자회



100% 수작업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명대 디자인대학원 섬유브랜드 '파비스트'가 지난 12/17(목) 정기전 진행과 함께 스카프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하는 자선바자회를 가졌습니다. 본부 홍보대사 양미경님도 함께 바자회에 참여해 이웃 사랑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명대 이현청 총장, 개그우먼 장미화 님도 행사개막식에 참석해 뜻 깊은 행동에 힘을 보탤했습니다. '파비스트'에서는 17일 판매수익의 56만5천원을

함께하는 사회사목

가톨릭핸드벨연합회 정기연주회

서울가톨릭핸드벨연합 정기연주회가 1/11(월) 20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 번째 핸드벨연주회 '나누며 크는 사랑'을 개최합니다.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말로테의 주기도문, 하이든의 천지창조, 크리스마스 캐롤 등을 연주하며,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핸드벨 보급 사업에 사용됩니다. 문의 | 세실기획 02-583-6295

'녹색나눔 기금마련'에 내놓았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나루 기업후원 협약식

도시락 먹고 이웃사랑 실천할래요



본부와 (주)나루씨이엠은 지난 12/22(수) 기업후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주)나루씨이엠은 후원금

기부와 후원마케팅 공동진행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와 (주)나루씨이엠이 11/30~12/13일까지 공동마케팅으로 진행한 '공부방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마스크 선물하기' 캠페인을 통해 얻어진 고급 방한용 마스크 300개도 함께 전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텍스메디칼

아동용 비타민·손세정제 기부

지난 12/2(수), (주)아텍스메디칼에서 1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아동용비타민과 손세정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비타민과 손세정제는 국내사회복지시설 공부방어린이들과 본부 지원국 몽골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생애 첫 기부

돌을 맞은 아기들의 '생애 첫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가족분들의 소중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 김태린 루치아 (2008.12.13생,父김형배/母주혜은)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 정성하 스테파노 (2008.12.25생,父정천호/母조은모) 6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 김준서 프란치스코 (2008.12.17생,父김도연/母서혜린)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한마음한몸공지



I Do 스티커 무료 배포!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전개하고 있는 이번 녹색나눔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물론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가능하며 본부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www.obos.or.kr ☎ 02-727-2267, 2294